

#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경제회복 박차”

### 보성군, 올 핵심과제 선정 5대 전략 80개 단위사업 민선 7기 현안과 연계 추진

보성군이 올해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은 '2022년 핵심과제'로 5대 전략 80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국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핵심과제는 지역경제, 정주기반,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민선 7기 핵심 현안 사업과 연계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5대 전략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소의 없는 포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친환경 스마트 농림어업 전환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문화콘텐츠(소프트 파워) 강화다.

먼저 공목상권 회복을 위해 올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을 43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선분양 80%를 목표로 제2 조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우리동네 마을복지 600 추진과 초동친구어린이집 신축,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 및 든든하고 맘 편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어업 분야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신상품 개발 '금선' 확대 보급, 참오막 지원회복 추진,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확대 지원, 보성 차 정원 조성사업 등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가 실시된다.

마을 생활 전통 숲 발굴 및 쉼터공간 조성, 군민 중심 행복택시 운영 등 교통 복지의 향상과 상수도

시설 인프라 구축 및 마을하수처리 정비사업,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특히 비대면 온택트 추세에 발맞춰 한국자박물관 ICT 융복합콘텐츠 조성사업, 보건소 제증명 발급 안내문자 서비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사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도 강화한다.

군은 반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전 부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행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2022년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때"라면서 "그동안의 정책 결실을 바탕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 '연경당',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 선정

### 전통놀이·다례 체험 등 마련

광양의 한옥체험 숙박시설인 '연경당'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발전 가능한 전통한옥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경당은 1년간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의 특성을 연계한 전통그네와 널뛰기 체험, 특산

물을 활용한 전통 다례 체험 등 전통문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간 2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연경당은 문체부가 선정한 전국 52곳의 한옥체험 시설 중 광양에서 유일하게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지역 내 전통 한옥이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에게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통 한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진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한옥체험 숙박시설 연경당 전경.

## 순천시, 도심 방치폐기물 200t 처리 환경 정비

### 도시미관 저해·환경오염 유발 폐도·하천 폐콘크리트 등 처리

순천시가 국·공유지 내 원인자 파악 불명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대대적인 시가지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순천시는 폐도·하천·공한지 등 국·공유지에 방치된 폐콘크리트, 석고텍스, 건축자재 등의 폐기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올해 방치폐기물 200t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읍·면·동별로 방치폐기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4월부터는 방치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국·공유지 방치폐기물 처리 결과와 성과를 분석해 처리하지 못한 방치폐기물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하천변, 나대지 등 곳곳에 방치된



순천시 관계자들이 국·공유지 내 원인자 파악 불명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을 찾아내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순천시는 올해 생

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 상인연합회 등 시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구례군, 33억 들여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구례군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33억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관련 사업 16억원과 아동수당, 아동급식,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 사업 17억원 등이다.

군은 가족의 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새내기로서 첫발을 내딛을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비율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주거비,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 부담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로 올리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 태어난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여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필수적인 위생용품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에게 매월 1만2000원, 연 최대 14만 4000원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만11세-만18세에서 만9세-만24세로 확대한다.

군 자체사업으로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1세-만18세 일반여성 청소년에게도 연 12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족들의 삶이 보다 안정적이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여수~거문항로 타 지역민 운임 50% 할인

### 내달부터 평일 1만8050원 섬 관광 활성화 기대

여수시는 3월1일부터 여수-거문항로를 이용하는 타 지역민의 여객 운임을 연중(평일) 50% 할인한다.

전남도가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4개 항로에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연중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여객운임 할인액은 전남도 20%, 여수시 20%, 여객선사가 10%를 부담한다.

타 지역 이용객은 운임 3만6100원 중 나머지 절반인 1만805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전남도의 지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여름 성수기인 여객 특송기간에는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여수시는 앞으로 여수-거문항로의 이용객 추이

변화를 분석해 주말과 공휴일, 여객 특송기간에도 운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건의해갈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섬 관광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며 "운임 부담이 줄어들면 만큼 청정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거문도에서 마음껏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수시민은 모든 항로에 50% 할인을, 도서민은 지난 9월부터 '도서민 천원요금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곡성군이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일부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은 정부의 지원 없이 곡성군 자체적으로 보험료의 30%-50%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월 보수액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뉘 1-4

등급까지는 보험료의 50%, 5-8등급은 보험료의 40%, 9-12등급은 보험료의 30%가 지원된다.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읍면사무소, 소상공인희망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